

학교 문법 용어의 표상 방식 유형화 연구

조진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I. 서론: 왜 문법 용어의 표상 방식인가?
- II. 연구 방법
- III. 학교 문법 용어의 표상 유형
- IV. 표상 유형에 따른 군집화
- V. 정리 및 제언

I. 서론: 왜 문법 용어의 표상 방식인가?

왜 문법 용어의 표상 방식에 주목하는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왜 문법 용어에 주목하는가? 이러한 질문의 이면에는 개념 학습에서 용어가 갖는 위상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존재한다. 용어는 본질적으로 개념의 모든 부면을 드러낼 수 없다. 용어가 갖는 이러한 태생적 제약으로 인해, 어떠한 용어도 개념의 표상이라는 차원에서 완전할 수 없다. 용어가 개념 표상이라는 차원에서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것이라면,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에 주목하는 것보다 개념 자체의 이해에 주목하는 것이 학습의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현상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문법교육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학습자상을 고려할 때 문법 용어의 위상 문제는 더욱 큰 난관에 봉착하는 듯하다. 문법교육이 ‘명사형 전성어미’, ‘부사절’, ‘서술절’과 같은 문법 용어를 달달 외 수 있는 성인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¹⁾ 차라리 문법 용어는 잊을지언정 문법적 지식

1) 문법교육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에 대한 논의는 신명선(2007) 참조.

을 탐구해 본 경험을 보유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언어적 민감성을 갖춘 성인을 만드는 것이 문법교육의 목표에 가깝다.

본 연구는 문법 용어가 가진 이러한 한계를 모두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동시에 문법 용어는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개념을 표상해 낼 수 없다는 점과 문법 용어의 암기가 문법교육의 본질적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문법 용어의 교육적 효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불완전하고 동시에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의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문법 용어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닮은 구석이 있다.

문법 용어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닮았다는 말은 문법 용어가 교육의 국면에서 일종의 방편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²⁾ 손가락이 달을 쳐다보게 만드는 방편인 것처럼 문법 용어도 문법 개념을 인식하게 만드는 일종의 방편이다. 그러나 문법 용어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다른 점은 ‘달’에 해당하는 ‘문법 개념’을 학습자가 인식하도록 만드는 방식이 단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법 용어가 문법 개념을 드러내는 방식, 즉 문법 용어의 표상 방식 자체가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문법 용어를 통한 문법 개념 인식 방식도 단일하지 않다.

국어학과 같은 순수 학문의 국면에서 문법 용어의 표상성은 한 방향의 지향을 갖는다. 다시 말해, 개념의 전형적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든가 아니면 다른 개념과 구분되는 유표적 지점을 가장 잘 드러내어 해당 개념의 식별을 용이하게 해야 좋은 표상으로 인정받는다. 이 경우 표상의 ‘전형성’, ‘투명성’이 좋은 표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국어학의 영역에서 문법 용어의 표상성이 태생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은 그저 문법 용어의 한

2) 김대행(2002)에서는 ‘손가락과 달’의 비유를 통해 국어교육에서 ‘언어’를 ‘손가락’ 수준으로 한정하는 태도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은 국어교육에서 ‘언어’를 어떻게 개념화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문제로, ‘손가락’으로 비유된 방편적 도구의 교육적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계로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문법교육의 국면에서 문법 용어의 표상성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은 그 자체로 하나의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문법 용어의 표상이 투명할 경우 문법 용어는 개념 이해를 쉽게 해 준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하지만, 문법 용어의 표상이 불투명한 경우라고 하여 교육적으로 유해한 것은 아니다. 표상의 불완전성과 표상의 불투명함은 문법 용어를 문법 개념 학습을 위한 탐구의 대상으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문법교육의 국면에서는 표상의 투명성이라는 단일 기준에 따라 문법 용어를 평가하기보다는, 문법 용어가 문법 개념을 인식하게 만드는 경로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문법 용어가 수행하는 교육적 기능을 고려한 표상 방식들을 찾고 이를 기준으로 문법 용어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모음(母音)’과 같은 문법 용어는 표상성 차원에서 다소 불투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불투명함이 때로는 학습자를 ‘모음’의 본질적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으로 이끌 수도 있다. 즉, “‘모음’은 왜 ‘모음(母音)’인가?”, “왜 ‘ㄴ’, ‘ㄷ’와 같은 음운을 ‘어머니 음[母音]’과 같은 방식으로 표상하는가?”와 같은 물음은 학습자를 문법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로 인도할 수 있다.

문법 용어에 국한된 논의는 아니지만 이제까지의 문법교육에서 ‘문법 개념을 어떻게 표상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기보다는 인식 주체와 거리를 두더라도 가장 정밀하고 정확하게 기술하는 방식으로 문법 개념을 표상해 왔다(이관희, 2015: 57-58)’는 지적은 문법 용어의 표상 방식을 다루는 자리에서도 유효하다. 문법교육에서는 ‘표상의 투명성’이 문법 용어를 평가하는 유일한 잣대가 될 수 없다. 문법 용어의 표상 방식에 따라 학습자가 얻게 되는 교육적 경험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문법 용어의 표상 유형을 살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 문법 용어의 표상성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학교 문법 용어의 표상 방식에 어떠한 유형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 이러한 유형화가 갖는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II장에서 유형 도출을 위해 사용한 연구 방법을 설명한다. III장에서 연구 결과 도출된 표상 방식의 유형을 제시하고 IV장에서 군집분석을 통해 표상 유형의 상호 결합 양상을 확인한 후 표상 방식의 유형화 및 문법 용어 분류의 교육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V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학교 문법 용어의 표상 방식 유형화라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연구 대상이 되는 학교 문법 용어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 문법’의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문법 용어’ 목록을 확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행한 ‘교과서 편수자료 (II)-인문·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 편-’에 수록된 ‘학교 문법 용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그간 발행된 모든 교육과정의 모든 국어 교과서에 사용된 문법 용어를 대상으로 삼거나 2012년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에 사용된 문법 용어를 대상으로 삼는 방법도 존재한다.

그러나 전자와 같은 전수 조사는 개인 연구에서 수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통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교 문법 용어의 표상 유형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 또한 후자는 본 연구의 의의를 특정 교육과정에 한정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특정 출판사에서 사용한 독특한 문법 용어까지 논의의 범위로 끌어들이게 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교과서별 문법 용어 사용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학교 문법 용어의 표상성을 확인하는 초기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의 보편성과 대표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자와 같은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

그에 비해 교육과학기술부(2011)는 교육과정 개발을 담당하는 공적 기관에서 발행한 편수 자료이기 때문에 이 편수 자료에서 ‘학교 문법 용어’라는 명칭으로 제시한 문법 용어는 일정 부분 대표성을 담지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물론, 교육과학기술부(2011)에서 제시한 학교 문법 용어가 강제력을 가지고 모든 국어과 교과서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급에 따라, 출판사에 따라 다른 문법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2011)는 교과서 기술을 통어하는 편수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학교 문법 용어’로 명시되어 제시된 목록은 일정 수준의 대표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11)에서는 학교 문법 용어를 ‘언어 일반’, ‘말소리’, ‘단어’, ‘어휘’, ‘문장’, ‘의미’, ‘담화’, ‘국어와 규범’, ‘옛말의 문법’의 총 9개 영역으로 나누어 총 635개의 학교 문법 용어를 제시하고 있다.³⁾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말소리’, ‘단어’, ‘문장’ 3개 영역에 제시된 학교 문법 용어 376개로 연구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였다.⁴⁾

2. 연구 절차

학교 문법 용어의 표상 방식 유형화를 위해서는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3) ‘센입천장소리’와 ‘경구개음’과 같이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용어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각각을 별도의 용어로 처리하였다.

4) ‘말소리’, ‘단어’, ‘문장’ 영역은 문법 교육 내용으로 비교적 오랫동안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 세 영역에 대한 표상 방식 유형화를 수행한 후 다른 영역의 문법 용어를 다루어 표상 방식의 유형을 확장하고 정련화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학교 문법 용어 목록에 대한 검토를 통한 표상 방식 추출 작업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순수하게 귀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에 의해 수행되는 해석 행위는 백지 상태에서 수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⁵⁾

따라서 학교 문법 용어 목록에 대한 검토에 선행하여 문법 용어의 표상과 관련된 기존 논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선행 연구는 문법 용어의 문제를 직접 다룬 연구(김호정 외, 2007; 남가영 외, 2007; 성낙수, 2010)뿐 아니라 문법 용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문법 교육에서의 표상성 문제에 주목한 논의(남가영, 2011b; 김은성, 2012; 이관희, 2012, 2015)를 포함한다. 또한 국어학에서 용어의 문제가 광범위하게 논의된 연구(이선웅, 2012; 유현경 외, 2014, 2015; 구본관 외, 2015)도 포함한다.

기존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법 용어의 표상 방식으로 설정 가능한 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잠정적인 분석 틀로 삼아 학교 문법 용어 목록을 검토하면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명시적으로 명명한 바 없지만 문법 용어의 표상 유형으로 새롭게 설정 가능한 부분들을 확인해 간다.

잠정적인 분석 틀을 전제하고 있지만 그 틀을 벗어난 부분에 주목하며 새로운 표상 유형을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일차적 작업은 탐색적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분석 틀로 포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해당 문법 용어의 표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짚진하게 묘사하며 자유롭게 기술한다.

5) 실제로 많은 질적 연구에서 엄밀한 실증주의적 관점보다는 연구자의 선지식의 개입을 인정하는 해석적 관점이 수용되고 있다. 근거이론에서 스트라우스와 코빈(Strauss & Corbin)이 엄밀한 실증주의적 관점을 취한 글레이저(Glaser)와 결별하고 연구자의 해석적 관여를 인정하는 패러다임 모형을 제안하였고(이영철, 2014: 193-194) 이것이 근거이론의 방법론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경향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근거이론에 입각한 것은 아니지만 질적 연구 수행에서 이러한 관점을 참고할 수 있다.

〈표 1〉 학교 문법 용어의 표상 특성 1차 분석 사례

학교 문법 용어	영역	표상 특성 기술	비고
어간	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幹)’이 ‘줄기’를 뜻하므로 비유적 표상에 해당함. • 그러나 어간이 왜 말의 ‘줄기’에 해당하는지는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⁶⁾ • ‘어간’이 ‘어미’와 함께 나오는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지’라는 비유가 ‘꼬리(尾)’라는 표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음.(관련 용어 간의 관계성 문제) 	비유적 표상 문제는 이관희(2012, 2015) 관련
⋮	⋮	⋮	⋮

이와 같은 일차적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는 새롭게 포착된 유형에 대한 기술을 정련화하고, 기존 유형을 포함하여 각 유형 간 위계적 관련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⁷⁾ 유형 간 관련성 확인을 통해 문법 용어의 표상 유형을 체계화한 후, 국어 교사 및 문법교육 전공자의 검토를 거쳐 해당 체계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표상 유형을 정립한 후에는 각 표상 유형들이 상호 결합하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문법 용어가 지닌 표상적 특성을 표상 유형별로 양화하면, 각 문법 용어에 어떠한 표상 유형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양적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값을 기반으로 군집분석을

6) 초창기 한국어 문법 용어에 대한 연구인 오옥매(2008: 91-93)에 따르면, ‘어간’에 해당하는 용어로 유길준(1897~1904)에서는 ‘原語’를, 김희상(1911)에서는 ‘原列’를 사용하였다. 또한 최현배(1930)에서는 ‘어간’을 ‘씨줄기’, ‘어미’를 ‘씨끝’이라고 명명하고 변화 여부로 이 둘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용어사적 흐름을 고려할 때, ‘어간’과 ‘어미’라는 표상의 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활용에서의 변화 여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간’이라는 용어에서 어간의 위치 정보뿐 아니라 변화 여부에 대한 인식도 읽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본 연구는 이론 생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거이론 연구는 아니지만, 1차 분석 결과 도출된 표상 유형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은 근거이론에서 제안한 축 코딩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단, 본 연구는 표상 유형들 간의 관계 정립을 통해 특정한 이론적 명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택 코딩에 대응하는 절차는 없다.

실시한 후, 군집별로 각 표상 유형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표상 유형 간의 상호 결합 양상을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⁸⁾

III. 학교 문법 용어의 표상 유형

II장에서 설명한 방식에 따라 학교 문법 용어의 표상 유형을 검토한 결과, ‘표상의 직접성/간접성’, ‘표상의 관계성’, ‘표상의 중층성’이라는 세 가지 대유형을 추출하였다. III장에서는 각 유형 내 존재하는 하위 유형을 상세화하고 하위 유형별 학교 문법 용어 사례를 제시한다.

1. 표상의 직접성/간접성

문법교육에서 비유적 표상은 ‘교과서의 기술이나 교사의 설명 과정에서 학습자의 지식 구성을 추동(이관희, 2012: 114)’할 수 있고, 문법 영역 안에서의 풀이에 비해 구체성이 두드러지는 특성(김은성, 2009: 304)을 지닌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물론, ‘비유의 속성상 설명하고자 하는 문법 지식의 특정 속성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어서 오개념을 형성할 여지가 있다(남가영, 2012: 21)’는 점도 지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법 용어에 초점을 맞추어 비유적 표상 양상을 확인하였다. 표상의 직접성/간접성에 대한 하위 유형과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물론, 군집분석에서 군집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통계학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군집분석 자체가 탐색적 성격을 띠는 점을 고려할 때 군집분석 결과를 해석의 한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표 2〉 ‘직접 표상/간접 표상’ 관련 하위 유형 및 사례

대유형	하위 유형	사례
직접 표상	-	콧소리 ……
간접 표상	인간 비유	모음, ⁹⁾ 자음 ……
	신체 비유	체언
	식물 비유	어근, 어간, 음절, 어절
	공간 비유 ¹⁰⁾	서술어의 자릿수,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행위 비유	안긴문장, 안은문장
	영역 전이적	1인칭, 2인칭, 3인칭 ……

표상의 직접성/간접성에 대한 하위 유형으로 ‘모음/자음’과 같은 인간 비유형, ‘체언’과 같은 신체 비유형,¹¹⁾ ‘어근, 어간, 음절, 어절’과 같은 식물 비유형, ‘서술어의 자릿수,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9)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단모음, 이중모음, 반모음’과 같은 용어도 ‘모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비유 유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용어들이 인간 비유 유형에 해당하는 이유가 ‘모음’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표 2〉에서는 표상성이 가장 명징하게 드러나는 ‘모음’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였다.

10) 현재 학교 문법 용어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공간 비유와 관련하여 최현배(1961: 596-597)가 ‘case’에 대한 일본 학계의 번역어인 ‘격(格)’ 대신 ‘자리’라는 용어를 제안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자리’는 ‘구실에서의 자리’를 뜻하는데, 이 역시 공간을 근원 영역으로 하는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로 볼 수 있다. ‘case’를 ‘자격’으로 표상하는 것과 ‘자리’와 같이 일종의 공간으로 표상하는 것은 ‘case’의 문법적 의미를 고려할 때 각각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학교 문법 용어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추후 문법 용어의 표상성 연구의 범위를 통시적 차원까지 확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11) 초창기 한국어 문법서에서 ‘체언(體言)’에 해당하는 또 다른 용어로 ‘체어(體語)’, ‘몸말’, ‘임자씨’ 등이 사용되었다(오옥매, 2008: 47). ‘체언’, ‘체어’, ‘몸말’은 모두 신체 비유를 통한 표상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임자씨’는 최현배(1930)의 용어인데, ‘월의 임자가 되는 힘을 가지며 다른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늘 월의 뼈다귀(骨格)를 일우나니라(최현배, 1930: 63)’라는 설명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신체 비유와 관련된 의미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임자씨’라는 용어 자체에 신체성이 표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의 분류에 따르면 ‘임자씨’는 인간 비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와 같은 공간 비유형,¹²⁾ ‘안긴문장, 안은문장’과 같은 행위 비유형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신체’가 ‘인간의 몸’을 뜻하기 때문에 ‘신체 비유형’이 ‘인간 비유형’과 개념상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인간 비유형’에 해당하는 용어가 대체로 인간의 역할을 표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간의 몸을 표상하는 용어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1인칭, 2인칭, 3인칭’의 경우 연극 용어를 문법 용어로 전용한 것으로¹³⁾ 다른 사례들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지만 크게 보아 간접적 표상 방식에 해당한다고 보고, 간접 표상의 하위 유형으로 ‘영역 전이형’을 설정하여 이에 포함하였다.¹⁴⁾

문법 용어가 문법 개념을 직접적 방식뿐 아니라 간접적 방식으로도 표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법교육에서 문법 용어는 설명의 도구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탐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은유적 과학 용어의 이해도 문제를 다룬 김영민 외(2013: 733)에서는 과학에서의 은유는 학습자에게 두 가지 어려움을 준다고 보았는데, 첫째는 은유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을 과학 개념에 접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은유적 용어가 갖는 이러한 어려움은 과학 교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음’, ‘자음’, ‘체언’, ‘어근’, ‘어간’ 등과 같은 비유적 문법 용어에 대해서도 동일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12) ‘자릿수’는 언어학적 관점에서는 ‘결합가(valency)’와 관련된다. ‘결합가’는 화학 용어가 문법 용어로 전용된 것이므로 영역 전이형에 속하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결합가’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아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13) Dixon(2010: 190)에 따르면 산스크리트어 전통에서 ‘he, she, it’은 ‘first(또는 lowest)’로, ‘you’는 ‘middle’로, ‘I’는 ‘highest(또는 most excellent)’로 표상되었다고 한다. 이후 문법학자들이 연극 용어를 비유적으로 차용하여 1인칭, 2인칭, 3인칭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Lyons, 1977: 638). ‘1인칭, 2인칭, 3인칭’과 같은 용어에는 언어 사용 상황에서 각 대명사에 해당하는 언어 주체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문법학자들의 판단이 담겨 있다.

14) 영역 전이형은 전문 용어의 층위와도 관련된 문제로 ‘표상의 중층성’ 항목에서 상론한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비유적 문법 용어가 갖는 간접성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ㅏ, ㅑ’와 같은 음운을 왜 ‘어머니 음[母音]’이라는 비유로 표상하였는지에 대한 탐구는 그 자체로 국어학자들이 해당 개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즉, ‘모음’이라는 용어에 대한 탐구를 통해 모음이 가진 다양한 특성 중 ‘성절성(成節性)’이 국어학자들에 의해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¹⁵⁾

지식의 구조가 해당 교과에서 기본이 되는 원리, 아이디어, 개념뿐 아니라 ‘이러한 원리, 아이디어, 개념을 다루는 방법적 원리나 태도를 모두 포함(남가영, 2007: 342)’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법 용어에 대한 탐구는 이처럼 학문 공동체에서 해당 문법 개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김호정 외(2007: 276-278)에서는 문법 용어를 문법 교과의 ‘지식의 구조’를 담고 있는 실체로, 제민경(2012: 178)에서는 ‘문법 지식의 근간이 되는 문법 개념의 절차적 사고를 가능케 하는 하나의 통로이자 노드(node)’로 기능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최근 전문용어학 분야에서도 사회용어론(socioterminology), 사회 인지 용어론(terminology socio-cognitive)의 관점에 터하여 전문 용어를 ‘단순히 개념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개념화의 과정 속에 있는 인지와 이해의 단위(이현주, 2015: 42)’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유적 문법 용어는 탐구를 유도하는 하나의 ‘질문’으로 존재한다. 의미적 투명성이 낮다는 점은 오히려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15) 유길준(1909: 6-7)에서는 ‘자음(子音)’ 대신 ‘부음(父音)’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모자(母子)’가 아닌 ‘부모(父母)’의 비유를 활용한 바 있다. 최현배(1961: 50-51)에서는 ‘vowel’을 ‘모음(母音)’, ‘consonant’를 ‘자음(子音)’이라고 하거나 ‘vowel’을 ‘부음(父音)’, ‘consonant’를 ‘모음(母音)’, 부모음(父母音)이 합하여 된 것을 ‘자음(子音)’이라고 하는 등의 경우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홀소리’와 ‘닿소리’라는 용어가 적절함을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모음/자음’과 같은 비유적 용어는 표상이 투명하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 탐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문법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문법 용어는 설명의 도구로 존재할 수도 있으나, 그 자체로 하나의 ‘질문’으로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표상의 관계성

개념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일정한 체계망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개념은 다른 개념과 모종의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개념이 상호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과 개념을 표상하는 용어가 표상된 언어 형식 차원에서 관련을 맺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예컨대, 학생들의 이해력 향상을 위한 물리 용어 개정 방안을 논의한 김인식·김중복(2014)에서는 ‘일률(Power)’과 ‘전력(Electric Power)’이 모두 와트(W)를 단위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이 두 용어 간의 연계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는데,¹⁶⁾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률’과 ‘전력’이 개념 차원에서 관련성을 지닌다는 사실이 용어 차원의 관련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법 개념 간의 관련성이 문법 용어 차원에서 비교적 명시적으로 드러난 사례를 중심으로 표상의 관계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대조적 표상’, ‘비대칭적 표상’, ‘합성적 표상’, ‘연계적 표상’의 하위 유형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표상의 관계성 내 하위 유형과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관계성’ 관련 하위 유형 및 사례

대유형	하위 유형	사례
관계적 표상	대조적 표상	센입천장(경구개)-여린입천장(연구개) 개모음-폐모음 고모음-저모음

16) 김인식·김중복(2014:25)에서는 같은 단위를 사용하는 물리 용어는 일관된 형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전력’ 대신 ‘전기일률’이라는 대안적 용어를 제안하였다.

관계적 표상	대조적 표상	단모음-이중모음 양성 모음-음성 모음 전설 모음-후설 모음 평순 모음-원순 모음 긴소리(장음)-짧은소리(단음) 울림소리(유성음)-안울림소리(무성음) 자립 형태소-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형식 형태소 접두사-접미사 단일어-복합어 자립 명사-의존 명사 단수 복수 자동사-타동사 ¹⁷⁾ 홀문장-겹문장 안긴문장-안은문장 주체-객체 주체 높임법-객체 높임법 직접 높임-간접 높임 능동 표현-피동 표현 능동문-피동문 능동사-피동사 주동사-사동사	
	비대칭적 표상	중심과 주변	본용언-보조 용언 본동사-보조 동사 본형용사-보조 형용사 주성분(주요 성분)-부속 성분
		기본과 변이	기본형-이형태
		일반과 특수	보통 명사-고유 명사
		여집합	불규칙 용언 ('규칙 용언'의 여집합) 불규칙 동사 ('규칙 동사'의 여집합) 불규칙 형용사 ('규칙 형용사'의 여집합) 비격식체('격식체'의 여집합)
	합성적 표상	음운(音+韻) 파찰음(破擦音) (破裂+摩擦)	
	연계적 표상	자립 형태소-자립 명사 의존 형태소-의존 명사 지시 대명사-지시 형용사-지시 관형사-지시 부사 접속 조사-접속 부사-접속 부사어	

17) 자동사와 타동사는 원어로는 'intransitive verb', 'transitive verb'이기 때문에 본래 여집합을 통한 비대칭적 표상 방식을 취했으나, 이를 '비타동사',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

‘대조적 표상’에는 ‘개모음-폐모음’, ‘고모음-저모음’, ‘자립 명사-의존 명사’, ‘단수-복수’와 같이 대조적 의미를 갖고 있는 언어 표지를 포함한 문법 용어가 포함된다. 대조적 표상 유형 안에는 ‘단수-복수’, ‘홀문장-겹문장’과 같이 상호 배타적인 의미 영역을 갖는 유형과 ‘고모음-저모음’, ‘전설 모음-후설 모음’과 같이 의미상 중간 영역이 존재할 수 있는 유형이 공존한다.

‘비대칭적 표상’은 의미 관계가 대등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키는데, ‘본용언-보조 용언’과 같은 중심과 주변의 관계, ‘기본형-이형태’와 같은 기본과 변이의 관계, ‘보통 명사-고유 명사’와 같은 일반과 특수 관계에 놓인 사례들을 비롯하여, ‘불규칙 용언’과 같이 여집합으로 표상된 사례가 포함된다.

‘합성적 표상’에는 ‘음운’, ‘파찰음’과 같이 두 개 이상의 문법 개념이 결합되었다는 점이 문법 용어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포함된다.

‘연계적 표상’은 용어 차원에서 연계성을 드러내는 명시적인 언어적 표지가 공유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자립 형태소-의존 형태소’와 같이 언어 단위에 따른 범주명이 공유되는 사례를 제외하고 ‘자립 형태소-자립 명사’와 같이 해당 개념의 속성을 나타내는 언어적 표지를 공유한 사례를 포함하였다. 연계적 표상 방식이 나타난 용어에 사용된 ‘자립’, ‘의존’, ‘지시’, ‘접속’은 언어 단위를 넘나들며 여러 개념을 관통(貫通)하는 성격을 지닌다.

문법 용어 표상 방식의 관계성을 고려할 때 문법 용어 역시 문법 개념과 마찬가지로 다른 문법 용어와의 관계 속에서 교수·학습되어야 한다. 대조적 표상, 비대칭적 표상은 문법 용어 간의 의미 관계에 주목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합성적 표상과 연계적 표상은 문법 용어 그 자체에 대한 분석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연계적 표상과 관련해서는 학습자

‘타동사’와 같이 번역하여 대조적 표상으로 표상 방식이 변화했다. 타동성의 개념을 고려할 때 자동사는 타동사와 대비하여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자동사’, ‘타동사’라는 용어를 해석할 때 이러한 표상 차원의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자동사’와 ‘타동사’의 용어 문제에 관한 문법교육적 논의는 조진수(2016) 참조.

들이 문법 용어들이 공유하고 있는 언어적 표지에 주목하여 문법 용어 간 관련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문법 개념 간의 관계를 추론해 보는 데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문법 용어가 상호 공유하고 있는 언어적 표지는 일종의 ‘연결소(제민경, 2012)’ 기능을 하게 된다.

3. 표상의 중층성

다수의 문법 용어는 일상어와 일정 부분 관련을 맺고 있다. 전문어인 문법 용어를 논하는 자리에서 일상어와의 관련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과학적 개념’에 해당하는 교과 지식의 구성 과정이 학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연발생적 개념’¹⁸⁾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Vygotsky, 1986/2011: 311-312). 이런 이유로 그간의 문법교육 연구에서 ‘과학적 개념이 자발적 개념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도입(남가영, 2011a: 127)’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고, 문법 용어 차원에서는 학습자가 일상어를 동원하여 문법 개념을 표상하는 양상이 포착되어 교육 내용화 과정의 고려 요인으로 논의(이관희, 2015: 277-280)되기도 하였다.

네이션(Nation, 2011/2012: 193-194)에서는 전문성(technicalness)의 정도는 특정 단어가 특정 영역에서 얼마나 한정되어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전문 용어를 다음과 같이 네 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범주 1: 어형이 거의 특정 분야에서만 나타난다.

예) 법: jactitation / 응용언어학: morpheme, lemma

범주 2: 어형이 특정 분야의 내외부에서 모두 사용되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

18) ‘spontaneous concept’를 ‘자발적 개념’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자발적 개념’이라는 번역어가 ‘spontaneous’를 ‘voluntary’로 오인하게 만들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spontaneous concept’에 대한 번역어로 ‘자발적 개념’이 아니라 ‘자연발생적 개념(김지현, 2000: 64)’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는 않는다.

예) 법: cite / 응용언어학: sense, reference

범주 3: 어형이 특정 분야의 내외부에서 모두 사용되지만,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용은 특정 의미로 이 분야에서 사용된다. 이 분야에서 사용되는 특수 의미는 이 분야 밖에서 사용된 의미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진다.

예) 법: accused / 응용언어학: range, frequency

범주 4: 어형이 다른 분야보다 이 분야에서 더 많이 출현한다. 이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그 의미에 관하여 보다 더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의미가 특수하지는 않다.

예) 법: judge / 응용언어학: word, meaning

네이션(Nation, 2011)은 범주 1, 2는 전문 용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범주 3, 4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지적한다. 순수 전문 용어의 정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범주 3, 4는 처리하기 곤란한 대상이지만, 표상의 중층성에 주목하는 문법교육적 관점에 서면 범주 3, 4는 전문어와 전문어, 전문어와 일상어 연계의 좋은 소재가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표상의 중층성 내 하위 유형과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중층성’ 관련 하위 유형 및 사례

대유형	하위 유형	사례
중층적 표상	일상어와 전문어의 중층적 구성	입안(구강), 코안(비강), 입술, 이, 잇몸, <u>센입</u> 천장, <u>여린입</u> 천장, 목청, 목안, <u>센입</u> 천장소리, <u>여린입</u> 천장소리, 목청소리, 콧소리, 교체, 탈락, 첨가, <u>고유</u> 명사, <u>보통</u> 명사, <u>자립</u> 명사, <u>의존</u> 명사, <u>보조</u> 동사, <u>보조</u> 형용사, <u>지시</u> 대명사, <u>지시</u> 형용사, <u>지시</u> 관형사, <u>지시</u> 부사, <u>관계</u> 언, <u>활용</u> , <u>규칙</u> 형용사, <u>불규칙</u> 형용사, <u>부속</u> 성분, <u>독립</u> 성분, <u>독립</u> 어, 문장의 <u>확대</u> , <u>이어진</u> 문장, 대등하게 <u>이어진</u> 문장, 종속적으로 <u>이어진</u> 문장, <u>안긴</u> 문장, <u>안은</u> 문장, <u>설명</u> 의문문, <u>판정</u> 의문문 …
	전문 영역 간 용어 전이	1인칭, 2인칭, 3인칭, 파생, 중화 …
단층적 표상	-	(중층적 표상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사례)

본 연구에서는 문법 용어 중 일상어가 전문어로 전용되어 특수한 의미를 획득한 경우에 특히 주목하여, 이를 중층적 표상의 하위 유형 중 ‘일상어와 전문어의 중층적 구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탈락’, ‘첨가’와 같은 사례는 문법 용어 전체가 일상어와 겹치는 경우이고, ‘보통 명사’, ‘보조 동사’, ‘문장의 확대’와 같은 사례는 문법 용어 중 일부가 일상어와 겹치는 사례이다.

물론, 문법 용어가 일상어에서 유래했는지, 아니면 외국의 전문 용어를 차용했는지는 철저히 규명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예컨대, ‘형용사(形容詞)’라는 용어는 유길준의 『조선문전(朝鮮文典)』에 사용되었는데, 이 용어는 당시 일본 학계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고 한다(오옥매, 2008: 67). 따라서 ‘형용사’가 ‘형용하다’와 같은 일상어에서 유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외국의 전문 용어를 차용한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용어가 그 나라의 일상어에 기반을 두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복잡한 양상을 띤다.

본 연구에서는 문법 용어 표상의 중층성을 용어의 기원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를 기준으로 공식적 차원에서 일상어적 속성을 가진 요소 중 전문어로 사용되면서 의미가 특수화된 사례를 추출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 용어의 기원을 확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문법 용어의 표상 방식이 학습자들의 학습과 관련되는 지점을 확인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층적 표상의 양상 중 다른 영역의 전문어가 문법 용어로 전용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전문 영역 간 용어 전이’로 명명하고 중층적 표상의 하위 유형 중 하나로 다루었다. ‘전문 영역 간 용어 전이’는 간접 표상의 하위 유형인 ‘영역 전이형’과 중복되지만, 동일한 현상을 간접성과 중층성 각각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표상의 중층성 차원에서도 설정하였다. 본래 연극 영역의 전문어였던 ‘1인칭’, ‘2인칭’, ‘3인칭’이 ‘전문 영역 간 용어 전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문법 용어 중에는 일상어적 속성을 가짐과 동시에 여러 전문 영역에서 활용되는 사례도 있다. 이현주(2015: 52)에 따르면 전문용어학의 이론 중 하나인 사회용어론(socioterminology)에서는 용어의 의미가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식 전달과 발화의 사회언어학적 조건 하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전문용어와 일반 어휘 간에는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 범위 차이가 존재한다고 간주한다. 이런 이유로 사회용어론에서는 ‘전문어(special language)’라는 용어보다 ‘전문화된 언어(specialized language)’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이현주(2015: 52)에서는 여러 전문분야에서 사용되면서 일상어적 의미가 감지되는 용어 중 하나로 ‘파생’을 들고 있다. ‘파생’은 언어학, 정보기술(IT), 경제 분야 등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로, 학교 문법에서도 ‘파생어’와 같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중화’ 역시 마찬가지로 물리, 화학, 언어학 등 다양한 전문 영역에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일상어적 의미가 포착되는 용어이다.

문법 용어의 표상이 중층성을 띠는다는 사실은 전문어로서의 문법 용어를 학습하는 과정에 일상어 차원의 이해가 관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상어와의 관련성은 두 방향의 시사점을 주는데, 하나는 전문어로서의 문법 용어가 일상어와 중첩되는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어와 구분되는 지점을 부각하는 것이다.¹⁹⁾

IV. 표상 유형에 따른 군집화

하나의 문법 용어가 하나의 표상 유형에만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

19) 이관희(2015: 280)에서 단어 형성법 관련 내용을 사례로 들어 ‘일상 용법과의 의미 차이를 노출함으로써 해당 개념의 구성을 공고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의 문법 용어에는 다양한 표상 유형이 공존한다. 따라서 다양한 표상 양식이 상호 결합하며 하나의 문법 용어에 존재하는 양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표상의 ‘간접성’, ‘대조성’, ‘비대칭성’, ‘합성성’, ‘연계성’, ‘중층성’의 6개 변수를 설정하여 각 문법 용어에 점수를 부여하였다. 해당 속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5점, 해당 속성이 일부 존재하면 1~4점, 해당 속성이 없으면 0점을 부여하였다.

예컨대, ‘자립 명사’는 ‘의존 명사’와 대립 관계에 놓이므로 ‘대조성’에서는 5점을 부여하고, ‘자립 명사’라는 용어의 구성 요소인 ‘자립’이 일상어에서도 사용되는 전문어이므로 ‘중층성’에서 3점을 부여하였다. 해당 용어 전체가 일상어에서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5점을, 해당 용어의 일부만이 일상어에서도 사용되는 등의 경우는 3점을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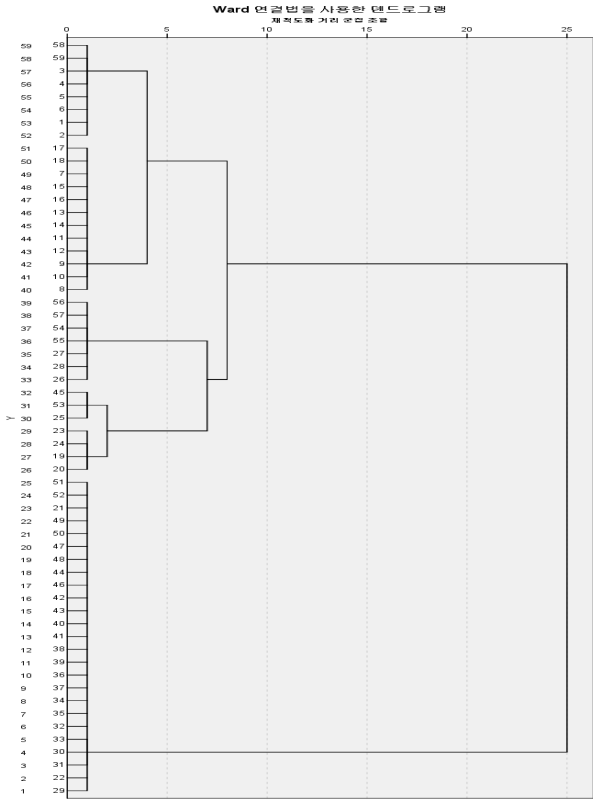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 문법 용어의 표상적 가치를 양화하여 자료를 구축한 후 이에 대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화를 위한 측정변수로 ‘간접성’, ‘대조성’, ‘비대칭성’, ‘합성성’, ‘연계성’, ‘중층성’의 6개 변수를 모두 사용하였는데, 2개 이상의 변수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는 59개 문법 용어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통상 군집분석 시행 전 주성분분석을 통해 각 변수를 선형 결합한 별도의 측정 변수를 만들어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 구축한 문법 용어의 표상성 자료는 변수 간 상관성이 낮아 주성분분석에 적합하지 않다(노형진·유자양, 2016: 86). 또한, 주성분분석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측정 변수의 성격을 규정하기 어려워 문법교육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해석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군집분석은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한 후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은 유사한 개체를 묶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 번 묶으면 다시는 묶음을 풀지 않는다.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군집 수를 결정한 후에는 여러 차례의 반복 시행을 통해 사용자가 지정한 수(=K)로 군집을 구성하는 K-평균 군집

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²⁰⁾

군집 수 결정을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 방법 중 와드(Ward) 방식²¹⁾을 사용한 결과 <그림 1>과 같은 덴드로그램이 나타났다.



<그림 1> 표상성에 따른 문법 용어 군집화 덴드로그램

20) 군집분석의 절차에 대해서는 허명희(2014) 참조.

21) 와드(Ward) 방식은 '새로운 군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오차 제곱합(ESS)의 증가량을 두 군집 사이의 거리로 정의하여 가장 유사성이 큰 군집을 묶어 나가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거리 계산 시 군집 중심 간의 거리에 가중값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심연결법과 구분된다 (최종후·전수영, 2012: 74). 즉, 와드 방식에서는 군집 내 개체 수가 많을수록 거리가 짧게 측정된다.

군집분석 시 군집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군집의 수는 계층적 군집분석에서 얻게 되는 덴드로그램을 보고 연구자가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이훈영, 2015: 455-456)’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을 고려하여 군집 수를 6개로 보고,²²⁾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 수를 더 적게 설정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이 최소 군집을 추출해 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용어를 표상 유형의 결합 방식에 따라 묶어 내는 데 있기 때문에 결합 방식을 세밀히 확인하고자 군집 수를 최대로 설정하였다. 군집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문법 용어 군집화 결과 및 군집별 특성

군집	문법 용어	군집 특성
군집 1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긴소리, 짧은소리, 울림소리, 안울림소리	표상의 중층성 대조적 표상
군집 2	고유 명사, 보통 명사, 본용언, 보조 용언, 보조 용언, 본동사, 보조 동사, 본형용사, 보조 형용사, 불규칙 용언, 불규칙 동사, 불규칙 형용사 등	표상의 중층성 비대칭적 표상
군집 3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지시 관형사	표상의 중층성 연계적 표상
군집 4	자립 형태소, 자립 명사, 의존 형태소, 의존 명사	대조적 표상 연계적 표상 표상의 중층성
군집 5	1인칭, 2인칭, 3인칭, 서술어의 자릿수, 한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표상의 간접성 표상의 중층성
군집 6	개모음, 폐모음, 고모음, 저모음, 단모음, 이중 모음, 양성 모음, 음성 모음,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안긴문장, 안은문장	표상의 간접성 대조적 표상 (중층적 표상)

군집 1은 중층적이면서 대조적인 표상 방식을 지닌 문법 용어 집단으로,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긴소리, 짧은소리, 울림소리, 안울림소리’가 이에 해당한다. 군집 2는 중층적이면서 비대칭적인 표상 방식을 지닌 문법

22) 덴드로그램을 고려하여 군집 수를 결정하는 과정은 서민원 · 배성근(2012: 133-134) 참조.

용어 집단으로, ‘고유 명사, 보통 명사, 본용언, 보조 용언, 본동사, 보조 동사, 본형용사, 보조 형용사, 불규칙 용언, 불규칙 동사, 불규칙 형용사’가 이에 해당한다.

군집 3은 중층적이면서 연계적인 표상을 지닌 문법 용어 집단으로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지시 관형사’가 이에 해당한다. 군집 4는 대조적이면서 연계적이고 동시에 중층적인 표상 방식을 지닌 문법 용어 집단으로 ‘자립 형태소, 자립 명사, 의존 형태소, 의존 명사’가 이에 해당한다.

군집 5는 간접적이면서 중층적인 표상 방식을 지닌 문법 용어 집단으로, ‘1인칭, 2인칭, 3인칭, 서술어의 자릿수, 한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가 이에 해당한다. 군집 6은 간접적이면서 대조적인 표상 방식을 지닌 문법 용어 집단으로 일부 용어는 중층성도 지니고 있다. ‘개모음, 폐모음, 고모음, 저모음, 단모음, 이중 모음, 양성 모음, 음성 모음,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안긴문장, 안은문장’이 이에 해당한다.

군집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우선 표상의 중층성이 다수의 문법 용어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III장에서 분석한 표상 유형 중 중층성은 그 정도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문법 용어에 적용되며 다른 유형의 표상 방식과 결합하고 있다. 이는 표상의 중층성을 인식하는 것이 문법 용어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대조적 표상과 연계적 표상이 함께 나타난 군집 4이다. 다른 군집들이 대체로 표상의 중층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표상 유형을 갖게 된 것에 비해 군집 4는 표상의 중층성을 제외하고도 2개의 표상 유형이 공존한다.

‘자립 형태소’는 ‘의존 형태소’와는 대립되지만 ‘자립 명사’와는 연계되는 속성을 지닌다. 마찬가지로 ‘의존 형태소’ 역시 ‘자립 형태소’와는 대립되지만 ‘의존 명사’와는 연계되는 속성²³⁾을 지닌다. 대조적 표상은 동일 언어 단

23) ‘의존 명사’에서 ‘의존’은 통사론적 의존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태론적 차원의 의존성을

위 내에서 실현되지만, 연계적 표상은 언어 단위를 넘나들며 실현된다. 군집 4에 포함된 문법 용어 간의 표상 관계는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2> 군집 4에 해당하는 문법 용어의 표상 관계

<그림 2>는 하나의 문법 용어에 다양한 표상 유형이 공존하고, 이에 따라 하나의 문법 용어가 다른 여러 문법 용어와 복합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와 같은 표상 관계망은 문법 용어의 표상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학습자에게 문법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조망적 인식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군집분석은 탐색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엄밀한 통계적 검증 결과를 보여준다고보다는 다수의 자료를 분류하는 하나의 가능태를 보여준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군집 6은 ‘모음’이 포함된 문법 용어가 많아 군집분석 결과 하나의 군집으로 묶인

의미하는 ‘의존 형태소’의 ‘의존’과는 구분된다(고영근 · 구분관, 2008; 고영근, 2010; 황화상, 2013). 조진수(2014: 294-295)에서는 ‘의존성’이 문법 개념을 다층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존성이 형태론적 차원 이외에 다른 차원으로까지 확장되어 문법의 각 층위 내에서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각 층위를 어떻게 꿰뚫고 있는지를 학습자가 조망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경우인데, 이를 하나의 군집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군집분석이 탐색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군집분석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군집분석의 결과가 다양한 사유를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표상의 중층성이 여러 군집에 관여한다는 점과 표상의 중층성을 제외하고도 2개의 표상 유형이 공존하는 군집 4에 주목한 것은 군집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해석을 이끌어 낸 경우이지만, 군집 6의 설정에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군집분석 결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본고는 군집분석을 국어 문법 용어 분류에 활용한 최초의 연구로, 향후 문법 용어를 표상 방식에 따라 분류하는 방안과 분류 결과의 문법교육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V. 정리 및 제언

본 연구는 문법교육학에서 표상의 전형성 혹은 투명성과 같은 기준만으로 문법 용어를 평가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학교 문법 용어의 표상 방식을 ‘직접성/간접성’, ‘관계성’, ‘중층성’ 차원에서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존재하는 하위 유형을 상세화하였다. 또한, 각 하위 유형이 하나의 문법 용어에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공존하는지를 확인하고 군집분석을 통해 표상 유형의 결합 방식에 따라 문법 용어를 분류하였다. 문법 용어의 표상 유형과 하위 유형 간 결합 양상 규명은 문법교육에서 문법 용어가 갖는 교육적 기능을 체계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문법 용어의 표상성에 대한 연구가 문법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첫째, 문법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표상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음운’, ‘단어’, ‘문장’ 영역의 학교 문법 용어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언어 일반’, ‘어휘’, ‘의미’, ‘담화’, ‘규범’, ‘국어사’ 영역의 용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영역의 문법 용어에 대한 표상성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표상 유형을 상세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역 간 표상 유형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학교 문법 용어뿐 아니라 국어학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문법 용어의 표상성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법 교육적 관점에서는 표상의 투명성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문법 용어를 평가할 수 없다. 다양한 문법 용어를 비교해 봄으로써 하나의 개념을 표상하는 복수의 방식을 규명하고 각 표상 방식이 갖는 문법교육적 가치를 찾아가는 작업은 문법 용어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셋째, 다양한 표상 방식이 공존하는 문법 용어를 학습자들이 학습해 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통해 표상의 간접성, 관계성, 중층성이 한 문법 용어 안에 공존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는데, 표상 방식의 공존은 학습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표상 방식의 상호작용으로 학습이 용이해질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군집 유형을 활용하여 향후 학습자의 학습 양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문법 용어의 표상 방식을 학습 전략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2017. 1. 19. 투고되었으며, 2017. 2. 14. 심사가 시작되어 2017. 3. 9.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고영근(2010), 『우리말 문법에 대한 궁금증 115가지』, 박이정.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구본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 김대행(2002), 「내용론을 위하여」, 『국어교육연구』 10, 7-3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교육과학기술부(2011), 『교과서 편수자료(II): 인문·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 편』, 교육과학기술부.
- 김영민 외(2013), 「은유적 과학 용어들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 및 이해도 조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3(4), 718-734, 한국과학교육학회.
- 김은성(2009), 「문법 교수·학습 방법 구체화를 위한 수업 의사소통 양상 연구: 교사의 문법적 지식 설명하기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6, 287-317, 국어교육학회.
- 김은성(2012), 「문법교육 내용의 표상체로서의 담화: 문법교육 내용화 방안의 변화 모색을 위한 시론」, 『문법교육』 16, 83-110, 한국문법교육학회.
- 김인식·김중복(2014), 「학생들의 이해력 향상을 위한 물리용어 개정방안: 중학교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현장과학교육』 8(1), 19-33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 김지현(2000), 「비고츠키의 지식점유과정과 언어매개기능에 관한 교육학적 고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호정 외(2007), 「문법 용어를 통한 문법 지식 체계 구조화 연구(I): 음운」, 『국어교육연구』 28, 275-300, 국어교육학회.
- 남가영(2007), 「문법교육의 '지식의 구조' 체계화 방향」, 『국어교육』 123, 341-374, 한국어교육학회.
- 남가영(2011a), 「초등학교 문법 문식성 연구의 과제와 방향」, 『한국초등국어교육』 46, 99-132,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남가영(2011b), 「문법교육용 텍스트의 개념 및 범주」, 『국어교육』 136, 139-173, 한국어교육학회.
- 남가영(2012), 「문법교육과 교과서」, 『한국어학』 57, 1-34, 한국어학회.
- 남가영 외(2007), 「문법 용어를 통한 문법 지식 체계 구조화 연구(III): 형태」, 『우리말연구』 21, 177-209, 우리말학회.
- 노형진·유자양(2016), 『다변량분석 이론과 실제』, 지필미디어.
- 서민원·배성근(2012), 「대학교육역량 평가지표의 요인구조와 대학의 군집유형 분석」, 『교육평가연구』 25(1), 117-144, 한국교육평가학회.
- 성낙수(2010), 「학교 문법 품사 설정 및 용어 결정의 과정과 문제점」, 『문법교육』 12, 229-269, 한국문법교육학회.
- 신명선(2007), 「문법교육에서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28, 423-458, 국어교육학회.

- 오옥매(2008), 「초창기 한국어 문법 용어에 대한 연구: 1897년~1937년 문법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길준(1909), 『대한문전』, 김민수, 하동호, 고영근 편(1977-1985), 『역대한국문법대계』 11-06, 탑출판사.
- 유현경 외(2014), 『2014년 표준 국어 문법 개발』, 국립국어원.
- 유현경 외(2015), 『2015년 표준 국어 문법 개발』, 국립국어원.
- 이관희(2012), 「문법 설명 텍스트에 쓰인 비유적 표상의 양상: 교양 문법서를 대상으로」, 『한말연구』 31, 107-144, 한말연구학회.
- 이관희(2015), 「학습자의 지식 구성 분석을 통한 문법 교육 내용의 조직과 표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 이영철(2014), 「근거이론의 근거에 대한 음미 —방법론과 방법」,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1), 187-214, 한국정책과학학회.
- 이현주(2015), 「전문용어학의 이론적 토대를 위한 개념 연구」, 『한국사전학』 26, 40-67, 한국사전학회.
- 이훈영(2015), 『이훈영 교수의 연구조사방법론』, 청람.
- 제민경(2012), 「내러티브적 읽을 위한 문법 설명 텍스트 구성 방향: 실용 문법서의 내러티브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39, 175-211, 한국어교육학회.
- 조진수(2014), 「형태소의 ‘자립성’과 ‘의존성’에 대한 학습자의 오개념 연구」, 『문법교육』 21, 269-306, 한국문법교육학회.
- 조진수(2016), 「‘타동성’의 문법 교육적 위상 정립을 위한 시론」, 『국어국문학』 174, 71-97, 국어국문학회.
- 최중후 · 전수영(2012), 『JMP를 이용한 판별분석/군집분석』, 교우사.
- 최현배(1930), 「조선어의 품사분류론」, 김민수, 하동호, 고영근 편(1977-1985), 『역대한국문법대계』 11-44, 탑출판사.
- 최현배(1961), 『〈김고 고친〉 우리말본』, 정음사.
- 허명희(2014), 『SPSS Statistics 분류분석』, 데이터솔루션.
- 황화상(2013), 『현대국어 형태론』, 지식과 교양.
- Nation, I. S. P.(2012), 『I.S.P Nation의 외국어 어휘의 교수와 학습』, 김창구 역, 소통(원서출판 2011).
- Vygotsky, L. S.(2011), 『사고와 언어』, 윤초희 역, 교육과학사(원서출판 1986).
- Dixon, R. M. W.(2010), *Basic Linguistic Theory: Volume 2 Grammatical Topics*, Oxford University Press.
- Lyons, J.(1977), *Semantics* vol.2.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학교 문법 용어의 표상 방식 유형화 연구

조진수

본 연구는 학교 문법 용어의 표상 방식을 유형화하고 각 문법 용어에 복수의 표상 유형이 상호 결합하는 양상을 확인하여 문법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상의 전형성과 투명성을 기준으로 문법 용어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국어학과 달리 문법교육학에서는 단일한 기준으로 문법 용어를 평가할 수 없다. 문법교육에서는 문법 용어에 존재하는 다양한 표상성을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법 용어의 표상 유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편수 자료에 제시된 학교 문법 용어를 대상으로 질적 분석 실시하여 표상 방식을 유형화하고, 군집분석을 통해 표상 유형의 상호 결합 양상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학교 문법 용어의 표상 방식을 ‘직접성/간접성’, ‘관계성’, ‘중층성’ 차원에서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존재하는 하위 유형을 상세화하였으며, 표상 유형의 결합 방식에 따라 총 6개의 군집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문법 용어의 표상 유형과 표상 유형의 결합 양상을 규명함으로써 문법 용어가 갖는 교육적 기능을 체계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핵심어 문법교육, 학교 문법 용어, 표상 방식, 유형화, 군집분석

ABSTRACT

A Study on the Typification of the Representation Method of School Grammar Terms

Jo Jins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grammar educational implications by typifying the way school grammar terms are represented and verifying the mutual combination pattern of multiple representation types in each grammar term. Unlike Korean linguistics, which evaluates the appropriateness of grammatical terms based on the typicality and transparency of representation, grammar terms cannot be evaluated on a single standard in grammar education. Since it is important to address the various representations in a grammar term in an educationally meaningful way in grammar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types of representations of grammar term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typified the representation method by conducting a qualitative analysis of school grammar terms in the editing material of textbook and confirmed the mutual binding pattern of the representation types through cluster analysis. As a result, representation methods of school grammar terms were typified at the levels of 'directness/indirectness', 'relationship' and 'multi-layer'. Furthermore, the subtypes that exist in each type were specified. A total of 6 clusters were found in accordance with the combination method of representational type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d the basis for systematizing and expanding the educational functions of grammar terms by identifying 'the representation types' and 'the combination pattern of the representation type of grammar terms'.

KEYWORDS grammar education, school grammar terms, representation method, typification, cluster analysis